그를 통해
나에게 나아오라

작성일 : 2013. 6. 10(월)
작성자 : 주희빈

(새벽에 기도하는데 기도는 뜨겁게 잘 되는데 주님을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. 한참 성자 주님을 찾고 부르다가 성자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선생님을 찾고 부르며 선생님께 성자 주님과 대화하고 싶고 만나고 싶으니 선생님께서
성자 주님께 저 좀 만나 달라고 부탁을 해 달라 간구하였습니다. 그렇게 부탁을 드린 뒤 조금 뒤에 사랑스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.)

* 성자 주님의 말씀 *

사랑아.
이 시간 너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겠노라.
그래, 맞다.
이 세상에서
너희의 조건으로 나 만나는 자
아무도 없다.
전지전능한 신인
나를 만나는 것이 쉽겠느냐.
그러나 내가
너희에게 문을 열어 두어
내 곁으로,
내게 오도록 허락했으니
이 시대는 바로
내가 세운 선생이다.

섭리사 바보들.
내가 지금은
선생 통해 만나고 있는 줄
잘 모른다.
선생 통해 나 불러야지.
선생 통해 나 만나고자 간구해야지.
너희 스스로 나 만나겠다고 아무리 간구해도
지금은 나 만나기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.
때가 바뀌었다.
내가 너희에게 먼저 다가가
내 사랑 고백하며
내 품에 이끌던 때가 지났다.
너희가 먼저 나를 찾아야 돼.
너희가 스스로 나 만나고자
간절히 간구해야 한다.
그런데 여기서 너희가
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
여기서도 선생의 조건, 선생의 이름으로
나 만나길 간구해야
나 만나기가 쉽다는 것이다.
선생 조건으로 사랑의 문이 열렸으니
그 문으로 와야
나 만나기 쉽다는 것 알아야지.
선생의 이름으로 나 불러라.
선생의 조건으로 나 불러라.
내가 너희 옆에 있음을 쉽게 느낄 것이다.
선생으로 인해
내가 너희 곁에 다가가고 있음을
깊이 알고 나를 맞아라.

(성자 주님. 며칠 전 새벽에 자고 일어났을 때 생각지도 않았는데 제 머릿속에 또렷하게 '그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'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.)

사랑아.
너희들 이 섭리에 있으면서도
선생의 위력에 대해 잘 모른다.
그의 능력, 그의 권세가
어떤 것인지 잘 몰라.
너 오늘 경험해 봤지?

(네. 성자 주님을 계속 찾고 불러도 성자 주님을 만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선생님의 조건으로 주님 만나게 해 달라고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며 간구했는데 신기하게도 바로 주님을 만나 대화하게 되었습니다.)

그래, 이거야.
선생 조건이 이리 크다는 것이야.
나 만나기 힘들다고 하는 자들.
다시 점검해 봐라.
선생 통해 나 만나려고 하는지.
선생 통해 나에게 나아와야
나 만나기 쉽다.

특히 선생이 살아 있는 당세 때는

선생 통해 내가 이 땅에 강림했으니
선생 보는 것이
곧 나를 본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.
선생을 보면서 무엇을 보느냐.
단순히 선생을 육으로만 보면 안 된다.
선생을 통해
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지.
선생 통해
나를 느낄 수 있게 해야지.
이것을 제대로 해야
너희의 신앙이 더욱 차원을 높여
휴거의 300선을 향해
갈 수 있는 것이다.

휴거 300선 막연히 생각한다.
그저 기도하고 간구하면 되는 줄 안다.
물론 목숨 걸고 행하면
누구나 휴거 300선에 올라갈 수 있다.
그러나 너희가 선생을 누구라 생각하며
선생을 어찌 보느냐에 따라
가는 길이 달라진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
더 빨리 더 쉽게
휴거 300선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라.

선생의 조건으로 내가 이 땅에 강림했다.
선생의 조건으로 내가 너희를 신부로 삼았다.
선생의 조건으로 너희를 휴거시켜 내 나라 데려간다.
선생의 조건으로 이 시대 생명의 말씀을
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고 있다.
선생의 조건으로 이 섭리에
재림과 휴거의 역사가 시작되었다.
선생의 조건으로 이 민족 가운데
불같은 진리의 역사가 시작되었다.
선생의 조건으로
너희가 지금 나 만나고 있는 것을 알아라.
그의 조건으로 내가 너희 만나 주니
그를 통해 내 앞에 나아오너라.
그를 통해 내가 깊이 만나 주리라.

(성자 주님. 선생님의 육신이 살아 계신 것이 얼마나 큰 조건인지 깨닫습니다.)

사랑아.
선생은 나 라고
몇 번이나 말을 하였다.
이 말이 얼마나 깊은 말인지
그 심정 그대로
100% 깨닫고 가는 자가 없다.
선생의 육신이 살아 있으니
내가 지금 무한히 함께하며
그를 통해 역사하고 있다.
그가 사라지면
나 또한 이 땅에 발 디딜 터전이 사라지니
내가 어찌 이 땅에 강림할 수 있겠느냐.
성자의 출현은
오직 시대 분체가 살아 있을 때뿐이다.

성자의 출현은
곧 성삼위의 출현이며
성삼위의 강림인 것이다.
이 지상에 성삼위가 강림해서
역사하고 있으니
이 어찌 큰 일이 아니겠느냐.
하늘 보좌가 이 땅에 강림해서
역사하고 있다는 것이다.
이 지상에 성삼위가 강림했으니
그를 통해 나아오는 자,
참으로 복 있는 자로다.

지상에서 육신의 조건으로
그 영이 가는 곳이 달라지고,
지상에서 육신의 행함으로
그 영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이
영원불변의 법칙이다.
육으로 너희가 성삼위를 맞이했으니
영으로도 성삼위를 맞이하지 않겠느냐.
육으로 성삼위와 함께 살고 있으니
영으로도 성삼위가 거하는
성약성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.
이 시대 성삼위의 발판이 되는 선생이 있기에
너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다.
그러나 섭리 안에서도 아는 자만 알고
모르는 자는 모르는 안타까운 역사다.
이 말이 무엇이겠느냐.
알긴 알아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
너희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니냐.
사랑하는 자들아.
간절히 기도하여

이 시대 내가 세운
내 분체에 대해 깊이 깨달아라.
그가 누구이기에
만왕의 왕인 나 성자의 발길을 잡아
너희 곁에 두게 하는지 깨닫길 바란다.
사랑하기에 심정의 말을 한
너희의 영원한 신랑, 성자 본체다.